



◇완주 화암사 계곡, 손오공 모양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나무 동치에서 연기의 기르침을 배운다.

만물은 부처로 가는 구도자

나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주 즐겨본다. 그래서 TV에서 방영되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꼭 보려고 애쓴다.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 생태를 볼 때마다 나는 '살'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 세계도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아니한 '살'의 세계인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중생이란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다만 본능에 따라 생존할 뿐이고, 우리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허물'을 뒤집어쓰고,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다를 뿐이었던 것을 나는 생태 기록을 보며 깨닫는다.



<12> 숲속 숨은 구도자-중생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진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나'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나의 궁극적 목표이다. 사진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예술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닐까? 나는 '살'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을 이용할 뿐인데, 사람에게서 그 삶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문화의 때가 너무 두렵게 끼여 있기 때문에 그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나 돌같은 자연물을 더 본질적인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 말도 못하고, 아니, 저들끼리는 말 하겠지만,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수동적(생물중에서 식물이 가장 수동적이 아닐까?)인 식물이나 자연물이 나에게

입묵적인 실존의 자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진에선 사람이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그 밖의 자연과 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 그것은 결국 하나가 아닌가? 중국의 <서유기>는 불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의 수백 나라, 수만리 길을 다니며 온갖 고초를 다 겪

**삼장법사 서역행 담은
숲속의 나무 · 돌에게서
실존의 의미 깨닫는다
"불법에서 하나가 됨을"**

는 현장 법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선, 사람과 동물 그리고 천상의 세계가 모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서양의 <이슈 이야기>같은 우화소설도 동물들이 의인화 되어 묘사되지만,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의 세계에서 중

생이 하나의 세계임을 묘사하는 <서유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불법 속에서 중생은 하나- <서유기>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실존으로부터 나의 모든 회의와 사고가 시작된다. '나'에 대한 회의에서 '나' 밖의 세계'에 대한 회의가 또 다시 시작된다. '나'라고 하는 실존. 살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사랑도 하고, 욕망하고, 꿈도 꾸고, 그리고 매일 매일 단속적인 의식세계에서 살아가는 나- '나' 밖의 세계'는 또 무엇일까? 왜 '나'는 '너'와 하나로 될 수 없을까? 이것을 실존의 한계상황이라 하는가?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서면 무상(無常)인 것을

부처님은 우주의 궁극적 근원에 대해 무기(無記)로 침묵하셨다. '가르침'보다 '깨달음'이 중요한 때문일까?

불교는 공업(供業)에 의해 중생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무량하게 펼쳐진다고 한다. 아, 삼천대천세계. 이 엄청난 중생의 세계! 나는 그것이 절에 있음을 정에 가면서 늘 깨닫는다. 대웅전 안에서가 아니다. 절 가는 길가, 냇가, 숲 속에서 수 많은 중생이 연기에 따라 제 모양대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 놀란다. 그리고 그것이 손오공처럼 짙고 심술꾼이긴 하지만, 현장법사오 함께 불법을 구하려 서역 수만리 길의 역경을 헤치고, 이제 부처님 문 앞에 거의 다다른 중생의 구도행렬임을 나는 깨닫고 놀란다. 숲 속엔 그렇게, 스스로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한 중생의 아픔과 기원이 있는 것이다.

전생(사친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경전 분류 · 편목의 지침서

한글대장경의 세계

개원석교록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은 당나라 개원 18년 경조(京兆)에 있는 서숭복사(西崇福寺)의 사문 지승(智勝) 668 - 740이 편찬한 일체경의 목록이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개원록' '개원목록' '지승록'이라고도 한다.

지승은 당나라 때의 스님이지만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는 없다. 임찍이 출가하여 대 소승을 두루 수학했고 고금의 역사에도 달통 했다고 한다. 삼도진과 도안 등의 번역 경전을 열람한 후 명전과 도선 등이 편찬한 모든 경록을 보니 차이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다. 그리하여 <개원석교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후한 효문제 영평 10년(670)에서 개원 1년에 이르는 물 664년 간에 걸쳐서 176명의 삼장들이 한역한 대 소승의 경론본 삼장과 현성집전(賢聖集傳) 및 실역(失譯) 권본(翻本) 등 모두 2천 275부 7천 46권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칙명으로 대장경에 입장(入藏)되었다.

이 책은 모든 경록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정비된 것으로 송장본(宋藏本) 이후 모든 장경이 이것에 의거하였으며, 또한 예부터 전해 온 모든 언어 및 번역 경전의 글꼴 역시 이 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록(本錄)은 제 1권에 있는 총서 및 제 9권에 지승 자신이 써 놓은 기록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가 장경들을 열람하면서 그 이전에 저술된 <출삼장기집>을 시작으로 해서 법경, 비방장, 도선 등과 그 밖의 모든 경록을 참고했는데 그 기사에 오류와 결함이 많음을 발견하고 이를 유감으로 여러 목록의 기재를 비교 연구하는 한편 현존하는 경전의 실제 내용과 대조 하였다. 이러한 수년간의 노고의 결과로 개원 18년에 본록 및 <속대당내전록>(<속고금역경도기> <개원석교록약술>) 등이 햇빛을 보

게 되었다. 본록은 수년간에 걸쳐 비교 연구해서 낸 것으로서 본래는 순전히 사적으로 편찬된 경록이지만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편찬자가 '불가의 옛 문헌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정비되었다'라고 찬탄을 하였을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경록으로

경상되었다. 종래에 존재했던 것보다 결출하였기 때문에 후에 칙명으로 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본록의 조직을 살펴보면 전체를 총과 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총록은 제1권에서 제10권까지 전반부의 10권으로서 '총괄경록'이라고 하는데 후한 시대에서부터 개원 18년에 이르는 동안 역경 삼장들의 전기와 그들이 역출한 경전을 시대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소위 대록(代錄)이라고 하는 것

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명(異名) 약명(略名) 권수(卷數)의 시기(時期)와 장소 등에 근거하여 한역에 관계한 사람의 이름, 한역자가 있는 것과 실역(失譯)의 구별, 단역과 중역의 구별, 대경과 별생경의 구별 등에 대하여 밝히고 동시에 근거로 삼은 경록의 이름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제11권부터 20권까지의 후반부 10권의 별록은 <분별승록>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경록(法經錄) 계통의 분류, 정리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간정(勘定) 입장록과 현정(現定) 입장록을 견비하는 한편 <개원록> 독자의 부속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간정입장록에 해당하는 제11권부터 제13권까지는 유역(유역)본록과 유역(유역)본록으로 나뉜다. 각 경전을 대승과 소승의 경론본과 현성집전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반야 보적 대집 회엄 열반 등으로 좀더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이 체제는 후세 대장경 편목의 기준이 되었다.

唐代 지승스님 편찬

기존 역경오류 수정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기념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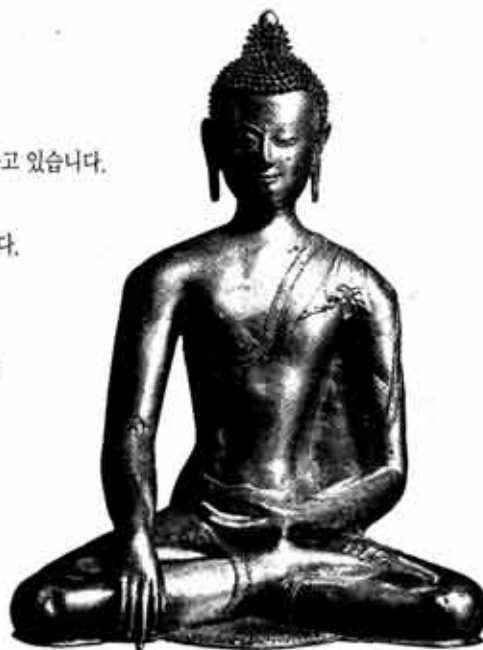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베트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열고 있는 '티베트 불교유물특별전'의 일환으로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하여 만다라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대표하며 신비에 쌓여 있는 만다라는 우주의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함축하고 있어 최근 전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오시면 여러 종류의 만다라가 제작되는 과정을 친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티베트 특유의 밀교의식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 2001. 6. 25~9. 17(3개월간)
매주 화요일 휴관(단, 7. 25~8. 15까지는 휴관 없음)
전시장소 : 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 티베트의 탱카, 불상 등 불교유물과 의상 등 민속품 300여 점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특 · 별 · 행 · 사

■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제작

기간 : 2001. 7. 8~8. 5(1개월간)
장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일정 : 오전 10:00~11:30 / 일반 만다라
오후 1:30~4:30 / 모래 만다라
7월 14·15·21·22·29일 오후 1:00~2:30 / 진색의식(총5회)
※ 진색의식: 축원문 및 곡식을 태우면서 자신의 액운 등을 날려보내는 의식으로 수명장수, 부귀, 액운소멸 등을 기원

■ 티베트 스님 초청강연

일시 : 2001. 7. 27(금) 오후 1시
장소 : 박물관 문화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384-0010
http://www.tongdomuseum.or.kr